

“AI 시대, 비판적 사고·자율성 키우는 자유민주주의 교육 필요”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교육” 특별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인공지능 시대의 자녀교육” 특별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영 교육위원장(사회), 정소영 씨, 이상우 교수, 이승배 교수, 김상순 박사. ©김진영 기자

서울시바른교육학부모회, 토론회 열고 미래 인재 양성 방향 모색

서울시바른교육학부모회가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자녀교육’이라는 주제로 전문가·학부모 초청 특별토론회를 열고,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 세대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원영 교육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됐으며, 교육계·학계·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 AI 시대 교육의 본질과 과제를 짚었다.

본격 토론회에 앞서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 세대와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은 한 세대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AI 시대 교육의 핵심으로 ‘질문 능력’을 꼽았다. 그는 “AI에는 방대한 답이 들어 있지만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며 “답이 정해진 질문은 가장 낮은 수준인데 현재

교육은 여전히 그런 방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질문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김상순 박사(북경대학, 자유주권총연맹 공동대표)는 “AI 시대는 혁명적 변화의 시기”라며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고차원적 사고, 창의적 탐구, 자율적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도 맞닿아 있으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것”이라며 “AI는 입력된 자료를 그대로 정리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집단 사고가 아닌 개인의 창의력과 분별력이며, 이를 통해 정보를 분석하고 핵심을 파악하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AI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고차원적 사고가 약화되고 자율성과 혁신이 도태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수호하는 입장에서 자율성과 비판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배 상명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 교육이 직면한 이중 위기로 ‘학령인구 감소’와 ‘AI 대전환’을 지목했다.

그는 “현재 교육은 여전히 20세기 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19세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느냐에 집중하는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비판적 사고와 질문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습 촉진자이자 멘토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정소영 씨는 “중학교 시절 진로 교육이 부족하다”며 “이미 아이들은 AI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이 현실을 조사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시대일수록 독서 교육이 중요하다”며 “교사와 학생이 한 권의 책을 중심으로 깊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시대, 자유와 책임의 교육을 향하여’ 선언문도 발표했다. 선언문 낭독에 나선 정안나 아나운서는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을 세우는 교육의 본질은 오히려 약화됐다”며 “이념 중심의 편향된 교육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에 맞는 창의적 미래교육 체제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래 교육은 특정 이념이 아니라 자유·책임·법치·인권권을 세우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 핵심 역량은 알기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라며 “이를 위해 AI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십자가 끝은 부활의 승리”... 엠아트서 ‘환희의 십자가전’ 오픈 감사예배 개최

2026년 부활절을 기념하는 ‘환희의 십자가전’ 오픈 감사예배가 지난 6일 엠아트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고난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부활의 기쁨과 환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날 예배에서 로고스문화 예술선교회 대표 장원철 목사는 ‘왜 <환희의 십자가>인가?’(눅 9:62, 23:27-28, 히 12:2)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프로이트는 우리 삶의 불행이 과거 유년 시절의 탓이라고 말하지만,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주님이 자신의 길을 걸으시기 때문이며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십자가는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활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리며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 소개가 이

어졌다. 김부자 작가는 이번 부활절을 위해 그린 신작을 소개하며 자연 섭리 속에 담긴 부활을 설명했다. 김 작가는 “제 그림은 빛, 공기(풍요), 물, 흙이라는 네 가지 생명의 요소를 항상 표현한다”며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기에 가운데 부활을 상징하는 빛의 표현을 강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고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전도의 메시지를, 백합은 기독교를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강명순 작가는 고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명력 가득한 화면을 선보였다. 강 작가는 “그동안 고난의 십자가는 많이 그렸지만 환희는 많이 그리지 못했다”며 “요즘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생명이 어찌면 저토록 신기할까 생각한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꽃이 피어나 기뻐하는 재미있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심영희 작가에게 이번 작품은 곧 전도의 열매였다. 심 작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십자가)만 따라가면 모든 인생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금칠을 했다”며 “작품 속 사람들은 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환희의십자가전 오픈 감사예배에 참석한 기독교미술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김부자-부활의 예수님 ©노형구 기자



심영희-부활의 기쁨 ©노형구 기자



강명순-예수 부활 하셨네 ©노형구 기자

전도하려는 영혼들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을 그리며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하나님은 주신 최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이번 전시에는 전시되어 있다. 노형구 기자

‘시대를 분별하는 기독 리더십’... 케일럽 포럼 창립

시대를 분별하는 기독 리더십 공동체를 지향하는 ‘케일럽 포럼(Caleb Forum)’이 공식 출범한다. 케일럽 포럼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동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아가페홀에서 창립감사예배와 대표 취임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케일럽 포럼은 ‘시대를 분별하는 믿음, 다음세대를 깨우는 영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신앙적 가치와 공공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 리더십 공동체’를 지향한다. 초대 대표에는 홍호수 목사(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이사장, 기록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 사무총장)가 취임할 예정이다.

케일럽 포럼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권위와 품격 있는 영향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독 리더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구약성경 인물 갈렙의 정신을 본받아 시대 흐름을 분별하고 신앙의 가치 위에서 미래 세대를 준비시키는 연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포럼 측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사회와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사역자들이 협력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신앙적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호수 목사는 취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신뢰와 영향력 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과 분별력을 갖춘 리더를 세워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형구 기자

“이슬람 체제 속 무슬림의 세계관 바로 알아야” >> 7면

의료선교사 로제타 서우드 홀 두루마리 공개 >> 24면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1시간 25분
평택 ↔ 제천 ↔ 영월 ↔ 삼척

126.9km 29.9km 70.3km

에타 통과(50분 예상)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해에서 동해까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
GANGWON STATE